

출발부터 불협화음 심한 '문학의 해'

작가회의측 조직위 탈퇴로 갈등... 사업계획의 실효성에 의문

'문학의 해'가 시작부터 어려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국악, 춤, 책, 미술에 이어 다섯번째로 문화체육부에서 정한 '96년 '문학의 해' 행사가 이처럼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문단내에 오랫동안 있어왔던 갈등 때문.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서기원)가 구성 초기부터, 작품성 지명도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문학의 실세그룹을 형성해 왔던 민족문학작가회의(회장 송기숙)로 대표되는 진보진영과 문학과지성사를 무게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중도 진영 문인들이 소외시키면서 잡음이 일기 시작한 문학의 해 준비 작업은 급기야 지난해 말 조직위에 참여했던 작가회의 소속문인 7명(조직위원 4명, 집행위원 3명)이 조직위를 탈퇴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형평에 어긋난 조직위 인선

고은, 김남조, 김시철, 김요섭, 김윤성, 김중길, 문덕수, 신경림, 성춘복, 윤종혁, 이형기, 함동선, 황 명(이상 시), 구혜영, 서기원, 송기숙, 유재용, 이호철, 홍성유(이상 소설), 김용직, 김윤식, 백낙청, 유종호, 윤병로(이상 평론), 김수남, 유경환(이상 아동문학), 박현숙, 유민영, 이근삼(이상 희곡), 김병권, 윤재천(이상 수필), 김상훈(시조) 등 감사와 당연직을 제외한 32명의 조직위원 중 작가회의 회원은 고은 씨 등 4명.

작가회의 송기숙 회장은 "이같은 형평에 어긋난 인선으로 인해 애초부터 이번 행사는 문협이 운영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문협측이 전권을 휘두르면서 짜여진 국제시낭송회, 한민족 문학인 대회 등을 빼대로 한 기획안은 작가들의 창작활동 화와는 관계가 없는 이벤트 위주의 예산낭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작가회의 측은 "87년 전두환정권의 4.13 호헌조치에 대해 가장 먼저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등 군사독재를 지지해온 문협으로 하여금 5,6공 청산작업이 한창인 시기의 문학행사를 맡기는 문화체육부가 과연 문민정부의 정부 부처인지 의심스럽다"고 정부측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공격을 하고 있다.

'문학의 해'가 시작부터

어려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문단 일각에서는 '작가회의'측과

중도진영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문학의 해 행사를

한국문학 전체의 대표성을 지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통과의례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으려면

사업계획의 철저한 재검토가

선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서기원 조직위원장은 "문학의 해를 맞아 문단 화합의 행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타깝다"고 당혹해 하면서 "과거를 문체 삼는 것을 옳지 않으며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문단 일각에서는 "작가회의 측과 중도진영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문학의 해 행사를 한국 문학 전체의 대표성을 지닌 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조심스러운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간 '문학의 해' 행사가 '반쪽'도 아닌 '3분의 1쪽' 행사에 그치고 말 공산이 커진다는 우려다. 게다가 작가회의 측이 독자적인 문학의 해 행사를 추진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보여주기식' 사업계획

지난해 12월 19일 조직위에서 발표한 '96 문학의 해' 사업계획은 이벤트 위주의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문인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문학활성화와 한국문학의 정체성 확립, 한국문학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 등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일회성 행사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회의 송기숙 회장은 "문학의 해 정부지원금 10억과 기업 후원금 등은 결국 국민들이 주는 돈"이라면서 "종합예술제와 한민족 문학인 대회 등 이벤트 행사에 3억5천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직위가 문학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 중 '근대 문학관



'문학의 해'가 출발부터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발표 기자간담회 모습.

건립' '근대문학 백년탑 건립' 등도 과거 정권의 '전시행정'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징물을 제작하는 것이 과연 문학기반을 조성하는 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이밖에도 대다수 젊은 문인들은 "문학지도 발간, 작가 활동지의 유적지 지정 추진, 동인지 콘테스트, 국제 시낭송회, 문학캠프, 문인 종합예술제 등의 행사들도 문인과 독자들 전체의 행사가 되기보다는 일부 문인들의 '자가 발전'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업계획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문학통신망 설치, 한국 근대문학 100년 CD-ROM 제작, 한국문학작품 데이터베이스화 등 시기적절하면서도 장기적인 계획들이다. 그러나 이 계획들을 올해 안에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장할 조직구성, 광범위한 자료수집, 시행사업체 선정 등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사업추진 속도나 초기화 작업의 진척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실현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문단내 갈등으로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문학의 해 행사가 통과의례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독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걸맞는 조직위 인선과 사업계획의 철저한 재검토, 재검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허연 기자

■'96 문학의 해 주요 사업계획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서기원)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96 문학의 해 사업계획'은 크게 문학기반 조성사업, 학술 및 자료조사사업, 문학창작 활성화 사업, 문학의 해 홍보 및 기념품 제작사업 등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문학기반 조성사업은 근대문학관 건립, 근대문학 백년탑 건립, 번역원 설치, 문학통신망 설치, 한국 근대문학 100년 CD-ROM 제작, 한국문학작품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등이며 학술 및 자료조사 사업은 국제세미나 개최, 문학인 위상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세미나 개최, 문학지도 발간, 한국문학 인명록 발간, 작가 활동지의 유적지 지정 추진 등 여섯개 세부사업으로 짜여져 있다. 문학창작 활성화 사업으로는 한민족 문학인 대회, 찾아가는 문학(독자와의 만남, 문학강연 등), 문인종합 예술제(문인 5일장 등), 작고·원로문인 육필 전시회, 동인지 콘테스트, TV 한국문학전집 방영, 국제 시낭송회 개최, 장에 작가 문학행사, 문학캠프 등 9개 행사가 계획되고 있으며 홍보 및 기념품 제작 사업은 포스터, 로고, 현판, 로고송 등을 제작한다는 방침이다.